

주간농업 농촌동향 **농식품 인증,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**

2011.07.25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7월 19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「농식품 인증,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농식품 인증제도 단일화의 필요성

- 그동안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인증제 표지도 매우 다양하여 구분이 힘들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
- 또한 인증표지에 있어 통일된 용어 사용과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

※ 농식품 표시 비신뢰 이유(소시모, 2010) : 인증표시가 너무 많아서(44.7%) > 과장된 선전 같아서(20.3) > 비표시품과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(13.0)

-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공통 표지로 단일화하여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,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해야할 필요성 대두

□ 주요 내용

- '국새' 모양의 '초록색 사각표지(Logo)' 형태만 확인해도 농식품부가 인증한 품질좋은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단일화(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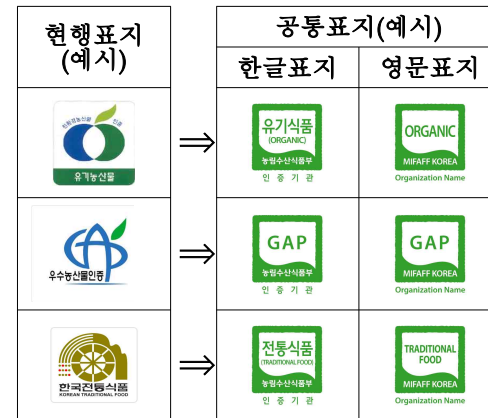
- 인증제별로 다양한 9개 형태의 표지를 1개의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

- 공통표지 도입(안) 세부 설명

- (공통표지 형태) 국기를 의미하는 '태극'과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'국새(인장)' 모양의 사각프레임을 사용하여 '안전한 농식품'과 '국가인증의 권위'를 표현
- (표지내 명칭) 기존에 사용하던 '한국', '농산물', '수산물', '축산물' 등 불필요한 수식용어는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·명료하게 표현
- (색상) 농림수산물부 이미지를 대표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선호하는

'초록색'을 기본색상으로 하되, 다양한 포장재와 포장형태를 고려하여 '적색'과 '청색'을 보조색상으로 사용

<공통표지(Logo) 도입(안)>



- 표지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표지 및 포장재는 향후 2년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,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망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

※ 전체 공통표지(Logo) 도안은 부록 참고.

부록

<전체 공통표지(Logo) 도입(안)>

구분	인증제도명	표지(現)	변경(안) : 기본색	
			한글표시	영문표시
친환경 인증	○ 유기농식품 인증			
	○ 친환경농산물 인증(유기)			
	○ 친환경수산물 인증			
	○ 친환경농산물 인증(무항생제)			
	○ 친환경농산물 인증(무농약)			
	○ 우수농산물(GAP) 인증			
안전 인증	○ 수산물 HACCP			
	○ 축산물 HACCP			
	※ GAP와 HACCP를 안전식품관리제도로 변경시			

구분	인증제도명	표지(現)	변경(안)	
			한글표시	영문표시
품질 특성 인증	○ 수산물지리적표시			
	○ 농산물지리적표시			
	○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			
	○ 전통식품 품질인증			
	○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			
	※ 전통식품 품질인증,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을 우수식품 관리제도로 변경시			
○ 식품명인지정				
○ 수산전통식품 명인지정	-			

주간농업 농촌동향 (가칭)시군 농어업회의소 추가확대 계획 발표

2011.07.25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7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(가칭)시군 농어업회의소 추가 확대 계획 발표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배경

- 그 동안 농어업인 단체와 농업전문가 등에서, 꾸준히 제기해 온 농정개혁 방안의 일환으로, 민간의 자발적 농정 참여를 위한 「농정협의체 설립」의 필요성을 주창
- 특히, '98년도 농업회의소 설치 실패에 따른 경험과 국내외적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농정협의체인 『농어업회의소 설치』가 절실하다는 필요성 대두

□ 2010년 시범사업 추진 사항 및 2011년 사업 계획

- 2010년도 첫 시범사업은 민간단체의 건의를 받아 들여,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공개평가 등을 거쳐 **3곳(강원 평창, 전북 진안, 전남 나주)을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**
 - 그 동안 교육·컨설팅지원과 운영 매뉴얼 작성 및 그에 따른 사무소 개소, 설립추진단 구성, 정관, 조례,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등의 절차가 지역간 다소 편차를 두고 현재 진행 중
- 2011년에는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와 전문가 공개평가 등을 거쳐 최종 **4곳(시·군)을 선정**한 후, 해당 지역의 「시군 농어업회의소」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예정
 - 향후 한국형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
- 2011년 시범사업은 '10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문제점, 그 동안의 중앙단위 논의기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·반영한 "2011년도 시범사업 세부

추진계획"에 의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

※ '11년도 시범사업의 경우, 민간단체에서는 '11년도에 7개소 추가확대('10년 3곳 건의)를 건의하였으나 지역간 편차 등 '10년도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고, '11년 추가 시범지역과의 동반 및 조기 연착륙 유도 등을 고려하여 개소 수 확대보다는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

- 아울러, 민간단체에서 운영되는 중앙단위 논의기구의 의견 등도 수렴·반영하기 위해 워크숍 등 다양한 논의의 場(가칭, 농어업회의소 설립 준비회의)도 계속 지원할 예정
 - ※ **농어업회의소는 민간 자발적 기구임을 존중하여 정부역할은 조력자로서 최소한(간접지원: 교육·컨설팅지원, 핵심리더 육성과정 및 중앙단위 논의 기구 운영 지원)으로 한정하여 지원**
-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을 경우, 대의기구로서의 본래의 목적과 자립기반 등을 갖추어 농업·농어촌분야의 정책결정시,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으로 예상
- 또한 지역농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, 민주적 절차 등을 제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숙된 대화·토의 문화 정착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진흥에 기여할 것임.

2011.07.25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7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제16차 한·미 식물검역 정례회의 개최 결과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- 회의 참석자: (한국 측) 검역검사본부 등 5명의 대표단, (미국 측) 동식물검역청 등 4명의 대표단
- (집중 논의 대상) 국산 냉이, 토마토 수출허용 및 국산 포도, 배의 미국 수출검역요건 완화 문제 등

□ 주요 협의결과

- 국산 냉이에 대해서는 금년 8월초까지, 토마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출이 가능하도록 협의
-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의 포장(圃場)검사 횟수를 연 2회(현행 4회)로 감축하기로 하였으며, 수출 배 봉지 씌우기 시한(현행 6.20일 까지)을 삭제
 - ※ 포도 포장검사 (현행) 948회(237농가×4회) ⇒ (개선) 474회(237농가×2회)
- 미국측은 수태(이끼)에 심겨진 국산 호접란에 대한 병해충위험 평가 결과를 금년 9월까지 제공하고, 내년 3월까지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함.
 - 한미 양국 식물검역당국간의 협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, 이르면 내년 말경에는 호접란의 미국 수출검역 요건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
- 작년에 수출이 허용된 감귤(온주밀감)에 이어 한라봉 및 천혜향의 추가 수출허용을 위한 검토도 조속히 추진
-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(생과실)의 경우에는, 우리측에서 그 동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수입검역요건 초안을 작성하여 미국측에

제공키로 함으로써, 미국산 신선 블루베리가 이르면 내년부터는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

※ 현재 냉동 및 건조 블루베리는 전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 가능함.

- 미국산 양벚(체리), 감자 수입허용지역 확대를 위한 현지조사 등 전문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